

사설

차기 총장 선출, 치열하게 논의하자

한균태 총장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차기 총장 임명과 관련한 법인과 대학 평의원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총장 선출에 대한 방법과 일정 여부는 고사하고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지난번 총장 임명 과정에서 선출제 모델을 확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개정안 논의가 조인원 전 총장의 임기 만료인 2018년 11월 이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신임 총장 없이 1년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마주했었다.

이러한 사태의 내막에는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그래도 이때는 소음 속에서도 총장 선출에 대한 의지로 조금씩 전진했다. 그런데 지금은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라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 과정의 경우, 끝없이 이어지는 줄다리기 속에서 총장 후보 추천안은 2019년 9월에 결정됐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월에 구성됐으며 후보자 공모 역시 10월 초에 마감됐다. 최종적으로 법인의 총장 임명까지 그렇게 1년간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뤄졌다. 이 모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지금 각 주체들은 지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4년 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정상적인 총장 선출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올해 초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법인의 응답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단일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대학평의원회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얼마 전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의회의 주도로 법인에 제출할 총장선거 관련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소식

이 들려왔다. 하지만 설문 대상에서 학생은 제외됐다. 대학평의원회 회원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이재백 학생회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설문 내용조차 부실한 지점이 엮보였던 것을 보면 대학평의원회가 단지 형식적인 수준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총장 선출 자체에 대한 법인의 외면 역시 큰 문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결국 총장 선출의 열쇠는 이사회가 쥐고 있다. 의사결정의 최종 주체가 결국 법인이라는 점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적인 총장 선출은 고사하고 기간 내 총장 선출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적 총장선출은 결과만큼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도 중요하다.

소통과 충분한 고민 없이 급박하게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것을 건전한 과정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순리대로라면, 지금 이 시기에 선출 방식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

한균태 총장이 선출된 16대 총장 선출에서 활용한 후보 추천안 모델은 앞으로도 고정적으로 사용하자고 합의한 모델이 아니다. 앞선 모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이번 17대 총장 선출에 적용하자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더 나은 선출 과정을 위한 고민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지난번처럼 총장 대행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구성원에게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세시봉

Mudjima 범죄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한류로 인해 우리말은 점차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김치(kimchi)와 막걸리(makkoli)가 처음 등재됐으며, 순차적으로 먹방(mukbang), 오편(oppa), 언니(unni), 치맥(chimaek) 등 우리말이 계속해서 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우수성과 전통을 드러내며 국제 공용어로 통하는 한국어가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흐름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만 국제 공용어가 되지는 않는다. 재벌 chaebol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으로 국한되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랐고, 갑질(gapjil)의 경우는 인격 모독적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OTT 플랫폼 속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많아지자, 우리말로 된 비속어가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BBC에서는 지난 21일 신림동과 3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의 문지마 칼부림 범죄를 'Mudjima'라 쓰며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주 가던 곳, 친숙한 장소에서 이유도 모른 채 크게 다치고 사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에 불을 붙였다. 이에 다수의 외신도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때 우리가 한번 더 관심 가져야 할 점은 'Mudjima'라고 보도한 표기 방식이다. 외신은 범죄의 양상을 드러내는 단어인 '문지마'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았다. 한글 발음 그대로 'Mudjima'라 표기하고 기사 곳곳에 보도하며 의도하지 않은 한국산 국제 통용어를 만들었다. '한국의 범죄'라는 타이틀 속에 기존과 달라진 방향으로 국제 공용어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2의 'Mudjima'라는 단어가 생길 때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계속해서 생겨날 부정적 의미의 한국산 국제 통용어를 경계할 때이지 않을까. 우리말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국제캠 샛길을 오가며

안전한 '전말'을 위해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전말 가능할까요?" "국제대에 서 우정원까지 15분 되나요?"

방학 기간 학교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글이다. 전말은 전자정보대학과 멀티미디어관을 오가는 것을 뜻한다. 시간표를 구상하며 제시간에 강의실에 도착할 수 있을지 가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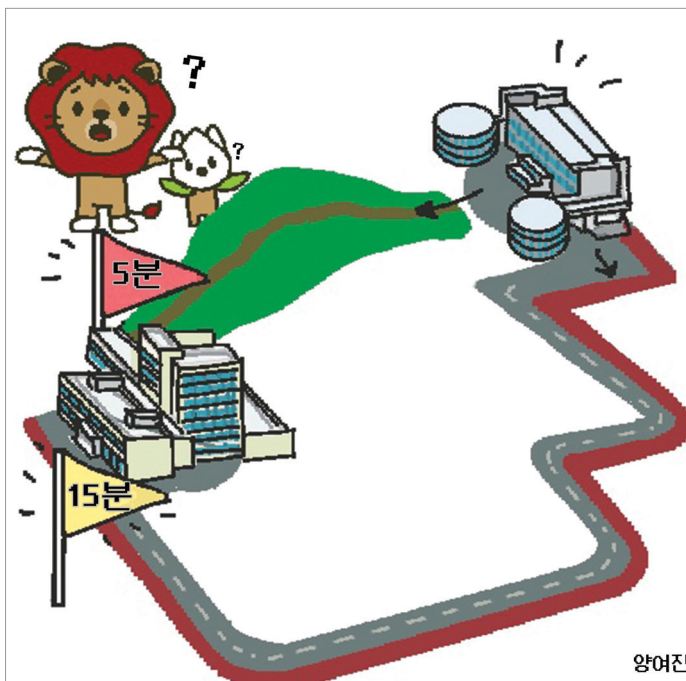
차도를 따라 걷는 보행로는 언덕길이 이어져 시간이 오래 걸린다. 캠퍼스 안에서 버스 탑승이 무료지만 일과 중엔 이동량이 많아 탑승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샛길이 구세주 역할을 한다. 시간에 맞춰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샛길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낫다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 있다.

서천동에서 자취하는 학생에게 통학 시간을 물으니 10분이 조금 넘게 걸린다고 답했다. 정문을 통과하는 경로로는 나올 수 없는

시간이다. 공식적인 후문이 없는 국제캠에서 중앙도서관 샛길이 맡은 역할은 의외로 컸다. 조명조차 없어 밤에는 플래시를 켜야 하며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산길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통학로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제2기숙사 샛길 취재자 용인시에 연락을 넣었다. 연락이 민원으로 접수돼 "태풍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만 차주엔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화한 통으로 해결될 일 때문에 그동안 캄캄한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학교에 따르면 샛길은 공식적인 보행로가 아니다. 그러나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샛길이 공식적인 보행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2학기에도 '전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서천동 자취촌과 예술디자인대학을 오가는 학생들도 있다. 샛길 역시 캠퍼스 곳곳에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만평 선택의 갈림길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